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탄력

익산시, 농축산식품부 승인... 70억원 투입 단계별 추진 마을전자상거래 · 시골여행 활성화 등 도 · 농 상생 모색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익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27일 마을전자상거래, 농촌환대대학운영, 시골여행 활성화 등 분야별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9억원, 도비 21억원 등 총 70억원이 투입되며 4년 동안 지역의 특색있는 유·무형의 에메니티 자원과 연계해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행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우선 시장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고령농·중소농·영세농민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자원조사를 통한 15개 읍면별 마을 대표품목 발굴, ▲공동체장고·선별기·포장시설 등을 갖춘 유통거점 센터 구축, ▲고유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산물·체험축제 발굴 등 마을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대표 거점 지역 발굴을 위한 주민 사업설명회가 진행됐으며 이후 거점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자립적인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상반기 농

촌관광분야 '체험지도사' 과정을 시작으로 아카데미활성화,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사회적농업, 마을공동체, 창업아카데미 등 현장 맞춤형 과정별·단계별 교육을 운영해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앞으로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촌활력대학'을 운영할 예정이며 분산·운영되고 있는 농업·농촌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운영시스템 구축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농업 외 소득향상 방안으로 ▲기존 마을공동체사업 보강·구축, ▲서비스 품질개선 매뉴얼 제작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 상황 평등화, ▲특색있는 지역 에메니티와 연계한 여행상품개발 및 시골여행거점 구축 ▲농촌관광 가이드라인 적용 등 '시골여행사업'을 활성화해 고령농, 중소농 영세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난 군산의 전통과 특색이 있는 군산짬뽕과 짬뽕특화거리를 알리기 위한 '2020 온라인 군산짬뽕페스티벌'이 막을 내렸다.

2020 온라인 군산짬뽕페스티벌 성황

짬뽕특화거리 포토존 등 인기

군산시는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난 군산의 전통과 특색이 있는 군산짬뽕과 짬뽕특화거리를 알리기 위한 '2020 온라인 군산짬뽕페스티벌'이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연계해 동명길 일원(장미동)에 위치한 짬뽕특화거리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짬뽕페스티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온라인과 비대면을 강조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2020 온라인 군산짬뽕페스티벌' 행사기간 동안 700m에 달하는 짬뽕특화거리에서는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흥등과 곳곳에 설치된 특색 있는 포토존으로 방문객의 눈을 즐겁게 하였으며 10여개의 특색있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주요 온라인 프로그램인 '군산짬뽕 UCC 공모전'은 지난

15일까지 군산짬뽕과 짬뽕특화거리를 주제로한 UCC영상 10개를 신청받아 최우수작 등 6작품을 선정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또한 사전신청을 통해 '군산해물짬뽕 밀키트'를 배송받아 자신만의 레시피로 군산짬뽕을 요리해 SNS에 인증하며 집안에서 비대면으로 군산짬뽕을 즐길 수 있는 '100인의 짬뽕요리사' 등 온라인 프로그램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군산칼래 챌린지 ▲짬뽕떡방의 달인 ▲거리 속 숨겨진 나의 한끼 ▲인생샷 인생짬뽕 ▲군산짬뽕 거리 도장깨기 ▲군산짬뽕 걸러링 북 등 다양한 SNS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군산사랑상품권 등을 증정하며 참여한 시민들이 다시 짬뽕특화거리로 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지만 큰 활력을 불어넣으며 2주간의 축제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짬뽕특화거리 내 짬뽕업소의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며 정체돼있는 구도심의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어린이집 휴원

군산시는 28일(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했으나 어린이집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25단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한 방역조치 전제하에 운영한다.

다만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등 가정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 어린이공연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한 방역조치 전제하에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시설 등 이용시설은 휴원권고 및 축소운영 하고 아동양육시설 등 생활시설은 외부인을 출입금지하고 생활인은 외출 및 외박이 제한된다.

어린이 공연장은 모든 대면 공연을 제한하고 대관 및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온라인 공연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기술로 동행'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차신태)는 최근 익산지역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재능기부 기술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기술봉사는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와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 체결기관인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양섭)에서 추천한 취약계층가구(목거노오) 3가구를 선정하여 진행했으며, 사전답사를 통하여 취약계층가구의 니즈 맞춤형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교직원 17명과 재학생 16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취약계층 가구의 도배, 장판, 전기, 보일러 점검을 통해 지역주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됐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산업설비과 김민

열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소외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활용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며 졸업 후에도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차신태)는 최근 익산지역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재능기부 기술봉사를 실시했다.

익산 탐마루조합법인, 올 400억원 '최고 매출' 달성

행정과 유기적 협조체계 한몫

익산시와 탐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산물에 대해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매출은 400억원으로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14개 지역농협의 공동출자로 출범한 통합마케팅 조직 익산탐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익산탐마루조합)은 지난 8월 북부청사로 이전 후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농산물 공동브랜드 '탐마루'를 널리 알리며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특히 시와 탐마루조합은 지속적으로 농가 조직화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가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양파를 포함한 상추, 수박, 고구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철저한 공동산별로 탐마루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농산물을 출하함으로써 대외협상력을 강화했으며 딸기 조직화 부분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인 매출 증대로 400억원의 매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 아파트 현장 지역업체 참여율 도내 '최고'

익산지역의 신축 아파트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율이 도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산 업체들이 주택 건설시장에 대거 참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27일 신축 중인 아파트 현장에 대상으로 하도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업체 하도급률은 평균 80%를 넘어섰으며 익산지역 업체 하도급률만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주와 군산, 대전 등 인근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전년동월 대비 15%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같은 성과는 정현을 시장의 특별지시를 토대로 시가 침해된 지역경제

를 살리고 지역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시는 지역업체가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부터 완공 시까지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매달 건축, 전기, 통신 등 세부 공정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현장점검, 시공사 면담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특히 외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가 제작한 전문건설업 현황 책자를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지역 업체 선정이 수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북도로부터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